'모리셔스'를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아프리카 대륙의 동쪽 인도양에 있는 섬 '모리셔스'는 편안한 휴가를 즐길 수 있는 동시에 신혼여행이 아니면 다녀오기 힘든 머나먼 땅이었다. "신은 세상을 만들기 전에 모리셔스를 가장 먼저 만들었다."라고 할 정도로 찬사가 가득한 신이 내린 신비의 섬, 모리셔스! 달콤한 신혼여행을 이곳으로 결정한 것은 운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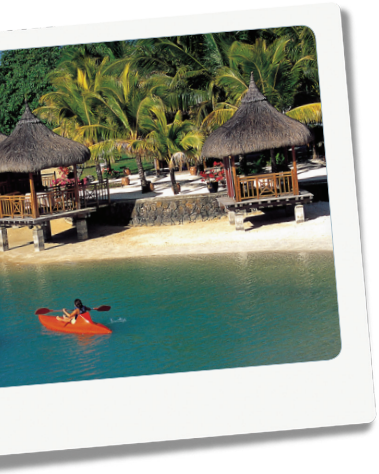
조경모
수치자료응용과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서 결혼식이 기다려질 정도로 모리셔스에 대한 기대감과 설렘으로 한껏 부풀어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모리셔스로 바로 날아가는 방법은 현재 없다. 두바이를 경유한 다음에야 모리셔스로 들어갈 수 있었다. 다행히도 두바이와 모리셔스는 시차가 없어서 경유에 대한 부담이 한결 줄었다. 경도선을 따라 쭉 내려오는 경로가 좌석 앞 모니터에 나타났다. 적도를 가로질러 남반구로 넘어가는 경로. 생애 첫 남반구 방문이었다. 기장의 착륙준비 음성이 들린다. 모리셔스가 다가오고 있다. 창문으로 서서히 나타나는 섬. 에메랄드빛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선명한 초록의 섬, 모리셔스였다.

섬을 감싸고 있는 아름다운 에메랄드빛 바다, '라군'은 모리셔스를 특별하게 만들어주었다. 지금껏 경험한 바다는 파도가 넘실대는 곳이었는데 그와는 달리 여기는 파도가 라군 바깥에서 막혀 부서지고 실제로 땅의 경계까지는 파도가 오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지 평온하고 얕은 바다가 넓게 펼쳐져서 물놀이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다.







모리셔스에서 지내는 동안 여러 가지를 경험해보았다. 스노클링, 카약, 스탠딩 패틀, 수상스키, 고요한 바다라도 맘대로 움직여주진 않았다. 특히 수상스키는 처음이었는데 일어서는 것조차 어려워 물만 먹고 제대로 해보진 못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배를 타고 들어간 작은 섬에서 했던 패러글라이딩이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본 모리셔스의 바다는 정말 아름다웠다. 섬 역시 넓은 라군 안에 들어와 있어서 그런지 파도 없이 넓은 해안을 가지고 있었다. 모리셔스의 리조트는 해안가를 따라 작은 집을 쭉 늘여놓은 구조였다. 딸려 있는 작은 정원을 지나면 바로 바다로 내려갈 수가 있었다. 그 곳에서는 작은 물고기들이 해안 바위틈에서 날 올려보고 있었다. 가끔 먹을 것을 얻어먹은 탓이었을까. 도망도 가지 않고 계속 맴돌고 있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을 것 같았던 모리셔스에서도 역시 예측할 수 없는 것은 날씨였다. 모리셔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것은 카타마란 크루즈이다. 모리셔스의 아름다운 바다와 어우러진 서부 카타마란은 돌고래와 같이 수영을 할 수 있다는 장점 덕에 더욱 기대가 컸다. 그러나 카타마란이 계획된 날 아침 억수같이 쏟아지던 비 덕분에 돌고래와의 만남은 다음 방문으로 미뤄야 했다. 모리셔스는 5월부터 겨울에 접어드는데 스콜성 강우만 피하면 실제로는 날씨가 좋다. 이날 비 역시 이른 아침까지 쏟아지더니 곧 파란 하늘을 보여주었다. 카타마란은 아쉽게도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리조트의 해변을 좀 더 여유롭게 즐길 수 있었다.

하지만 여기에 오기 전까지는 절대 생각하지 못했던 방해물이 하나 더 있었다. 그건 바로 조석이었다. 리조트에서의 물놀이에 집중하고자 맘을 먹었으나 조석에 의해 얕아지는 해수면은 늦은 오후 물놀이를 불가능하게 했고 덕분에 해변에 누워 햇살을 즐겼다. 탁 트인 하늘은 여행을 떠나며 남겨둔 한국에서의 생활을 시원하게 잊게 해주었다. 다음날 오전, 아침까지 말라있던 라군은 걱정과는 달리 때가 되니 금세 차올라 다시금 놀이터를 만들어주었다. 자연은 이렇듯 부지런히 움직인다.

좀 더 특별한 모리셔스를 만나고 싶다면, 모리셔스 동물원과 7가지 색 모래를 추천한다. 모리셔스 동물원은 사자와 치타같은 맹수를 곁에서 만져보는 체험을 제공하고 동물들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어서 많은 이들이 찾는다. 7가지 색 모래는 모리셔스만의 고유한 것으로 아름다운 섬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다시 신혼여행지를 결정하더라도 모리셔스를 택하겠느냐는 질문을 여러 사람에게 들었다. 신혼여행에 어떤 의미를 담아야 할지 명확히 답을 내리긴 힘들지만, 아름다운 모리셔스 여행은 특별한 기억으로 오래 남을 것 같다.